

4대강 사업 폐해 숨기려 녹조 몰래 제거 영산강도 공무원 동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가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댐 방류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산강에서도 지난해 수십여차례 걸쳐 공무원 200여명이 동원돼 녹조 제거 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수 차례의 댐 방류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공무원 150~200명을 투입, 광주시 남구 승촌보 일대에서 20~30여회에 걸쳐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과 외부 청소용역 업체 인원 등 한 차례에 7명씩 투입, 광주시 서구 서창교~남구 승촌보에 이르는 7km 구간 의 녹조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일 자료

를 통해 "MB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원돼 인력으로 녹조를 치워 시작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 녹조 제거에 1~2명이 투입되는데다, 이례적으로 공무원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녹조 은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만하다. 환경부 측은 "녹조를 사람의 손으로 걷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면서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또 "녹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7차

레에 걸쳐 농어촌공사측에 광주·나주·담양·장성댐 등 영산강 상류의 4개 댐 방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요청을 했지만 농어촌공사가 방류했는 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堰)가 여름철 녹조 현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공무원들을 동원해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러나 "환경부 발표와 달리, 녹조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녹조 완화를 위해 상부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댐 방류를 요청했고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열대야 탈출 캠핑장 북적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밤 광주 남구 승촌동 영산강 승촌보 캠핑장에서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이 캠핑을 하며 여름밤을 지새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살·인·폭·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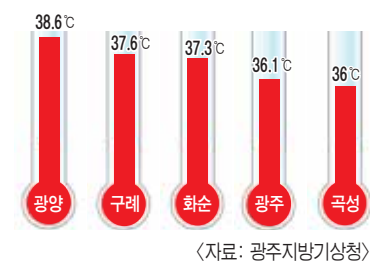
전남서 4명 숨져...전력 수요 사상최고 순환단전 위기

'살인 더위'가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을 휩쓸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 등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 서면서 일부 관공서는 정전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절전'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6면>

11일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35도를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야외 활동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오전 9시 40분께 완도군 노화읍에서 A(여·78)씨가 발열을 마치고 쉬던 중 갑자기 쓰러져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구례군 토지면 마을 고추밭에서 일하던 B(여·75)씨도 폭염에 지쳐 쓰러져 숨졌고 지난 8일 오후 8시 20분께 나주시 남평읍 밭에서 일하던 C(여·79)씨,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는 장흥군 용산면 고추밭에서 일하던 D(90)씨도 폭염으로 숨졌다.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

■ 11일 광주·전남 최고 기온



광주 북구청의 경우 지난 9일 4시간 넘게 정전돼 업무가 마비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고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는 관공서도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운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전력위기 수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국민 절전 호소문도 발표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고 열대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알림

디지털시대 홍보전략 다시 세워라
미디어 홍보 워크숍, 9월 26~27일 충남 보령

공들여 작성한 보도자료, 과연 얼마나 반영 되고 있습니까? 매일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미디어홍보는 포기하는 것과 다를 없습니다. 곁질 뿐인 보도자료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 또한 오히려 자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홍보의 핵심을 관통해 만들어진 한편의 보도자료가 회사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광주일보가 마련한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홍보마케팅 강좌는 홍보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내 최고 홍보전문가 및 현직 기자가 참여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광주, 전남·북 기관·단체·기업 홍보담당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13년 9월 26일~27일(1박2일) 9월26일 오전 9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단체출발
- 장 소: 충남 보령 웨스토피아 리조트
- 워크숍 내용: 디지털시대 홍보전략을 다시 세워라
보도 자료 작성 실무, 보도 사진 촬영 실무
- 대 상: 광주 전남·북 기관·단체·기업 홍보담당자
- 원서접수 및 등록기간: 2013년 8월 30일(금) 60명 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광주일보 프로젝트팀 062)220-0555

61 창설 61주년 光州日報社

인력·예산 줄이고 조직 기형화...사실상 조성사업 축소

亞문화수도 특별법 '꼼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탄력적 조직 운영 등을 명분으로 입법 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성 사업을 축소하고,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입될 운영비 지원 등을 없애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오는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중인 문화전당 조성사업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창작과 연구기능을 강화한 문화발전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예산이 전사·일회성 페스티벌 공연 예산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은 지난 8일 문화전당 운영지원분과회의를 열고 현재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개정안이 '독소조항'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문광부의 해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원포럼에 따르면 문광부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문화전당의 중심축인 창조원과 정보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민공교류원 등 5개원을 사실상 해체했다. <2면에 계속> <박정렬기자 lucky@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확장·이전
문의: 062)226-0001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LIRIKOS

고농축 수분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수분피부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작습니다. 605m 깊은 바다가 응축하고 응축하여 만든 심층수를 그대로 담아낸 수분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아도 피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촉촉함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바다 수분 앰플을 만나보세요.

촉촉한 5ml의 바다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그러나 쉽게 다가갈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바다 - 그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육지만을 주목할 때 리리코스는 끊임없이 비단속 새로운 발견을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심층수에서 수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살기 어려운 온도 2℃의 순수한 생명력, 수백년간 다른 해수와는 거의 색이 다른 고유수의 생명력, 그리고 605m 바닷속 높은 압력에 응축되고 응축된 진하고 강한 생명력까지 - 리리코스는 이런 순수한 심층수를 5ml 작은 앰플에 담았습니다.

리리코스는 뷰티어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이노비피마(주)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lirkos.co.kr